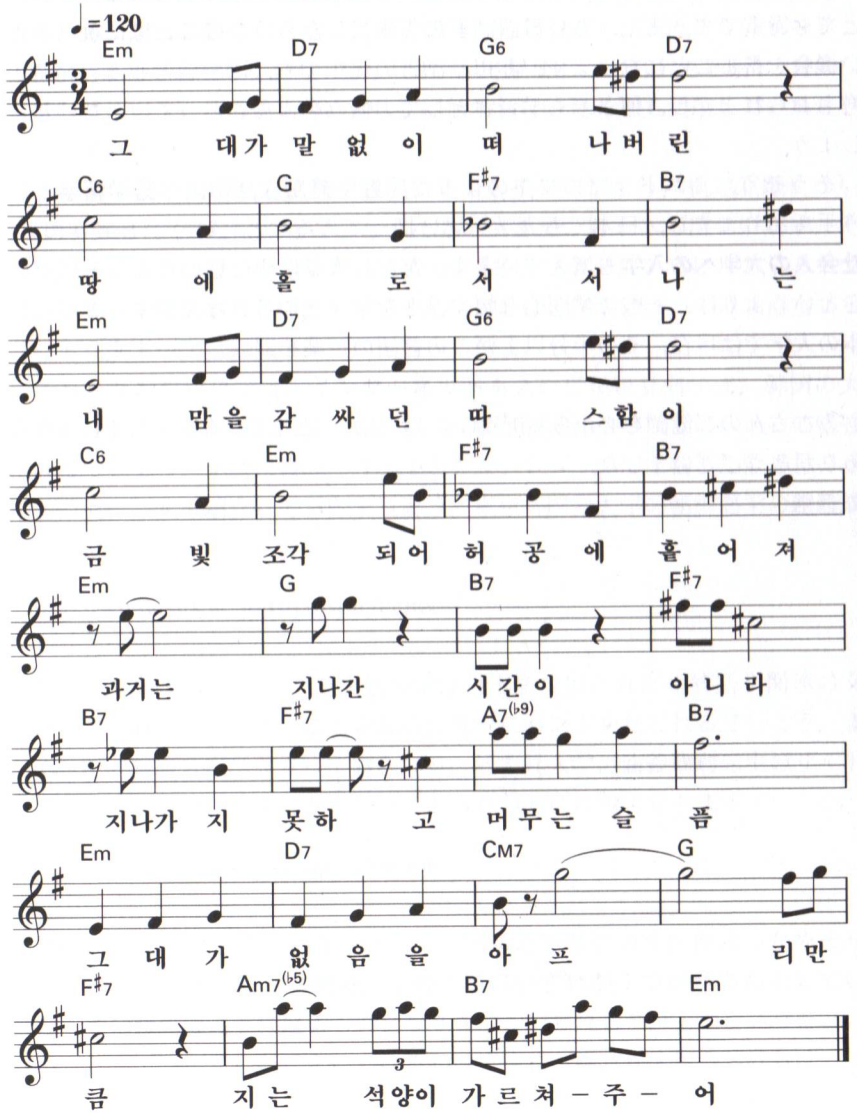
「그대, 바람 속에 君, 風の中に」挿入曲

석양—그대 떠난 땅에

夕陽——君去りし地に



석양—그대 떠난 땅에

チャクサ チャソコク チョスア
작사・작곡：조수아
作詞・作曲　チョ・スア

[1]

[クデガマーロプシ トナボリン タんエ]
그대가 말없이 떠나 버린 땅에
君がことばもなく去りし地に

[ホルロ ソソ ナヌン]
홀로 서서 나는
一人立ち 私は

[ネ マムル カムサドン タスハミ]
내 맘을 감싸던 따스함이
私の心を包んでくれていた暖かさが

[クムビッ チョガク トエオ ホゴんエ フトジョ]
금빛 조각 되어 허공에 흩어져
金色のかけらとなり 虚空に散り

[クァゴヌン チナガン シガニ アニラ]
과거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
過去は過ぎ去った時間ではなく

[チナガジ モタゴ]
지나가지 못하고
過ぎ去ることもできずに

[モムヌン スルプム]
머무는 슬픔
留まる悲しみ

[クデガ オプスムル アプリマンクム]
그대가 없음을 아프리만큼
君がなきを 痛いほどに

[チヌン ソギャんイ カルチョ ジュオ]
지는 석양이 가르쳐 주어
沈む夕陽が教えてくれて

[2]

[クデワ マンナソ ハムケ チネン タんウル]
그대와 만나서 함께 지낸 땅을
君と出会い共に過ごした地に

[ホルロ マンジョ ナヌン]
홀로 만져 나는
一人触れ 私は

[ナムキョジン エソカシ キオクトゥリ]
남겨진 애석한 기억들이
残された哀惜の記憶たちが

[ハヨモムヌン スルプム ドェオ ソダジョ]
하염없는 슬픔 되어 쏟아져
とめどなき悲しみとなり 溢れ

[ソギャんウン サラメ スルプムロ タオルラ]
석양은 사람의 슬픔으로 타올라
夕陽は人の悲しみとなって燃え

[ハヤン タルン サラメ]
하얀 달은 사람의
白き月は人の

[クリウムロ パレオ]
그리움으로 바래어
恋しさとなって消えゆ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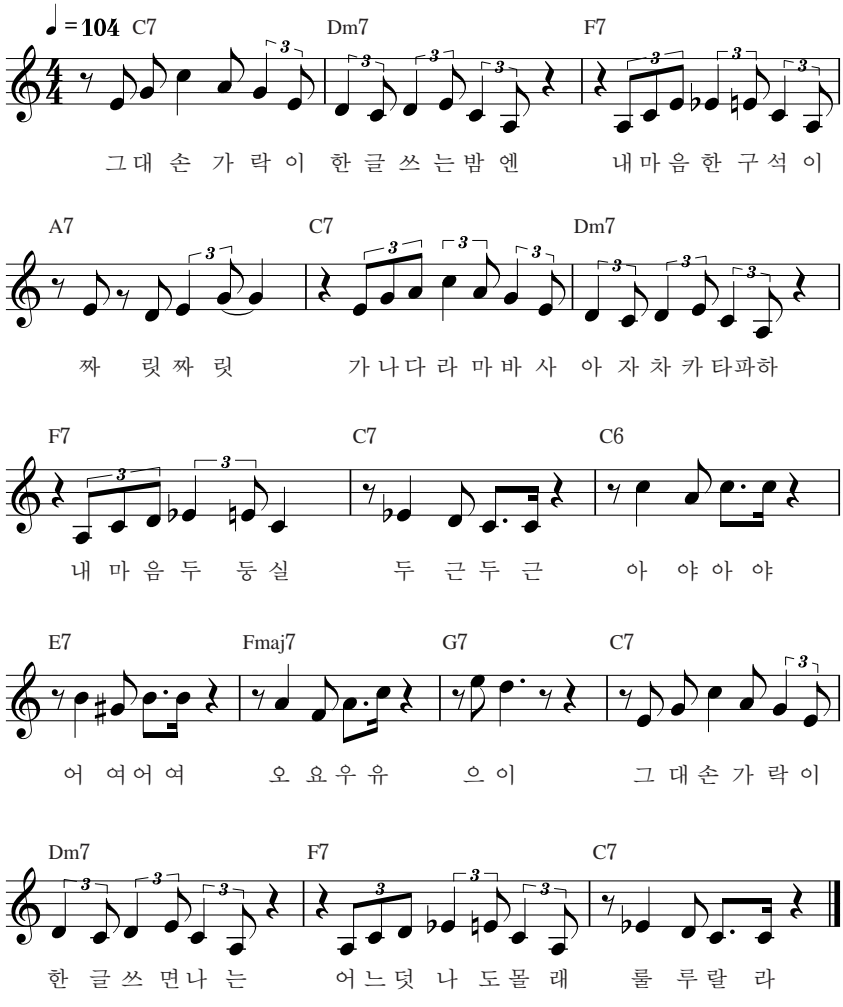
[クレド ポゴ シポ ポゴ シポソ]
그래도 보고 싶어 보고 싶어서
それでも会いたく，会いたくて

[クデ スムキョルン アスラハヨ]
그대 숨결은 아스라하여
君の吐息はかすかに

「그대, 바람 속에 君, 風の中に」挿入歌

Swinging 한글

작사, 작곡 : 조수아 (Cho Su-a)



♪Swinging 한글♪

チャクサ　チャッコク　チョ　スア
[tʃak⁷sa tʃaᵏ⁷koᵏ tʃo sua]
작사　작곡 : 조 수아
作詞　作曲　チョ・スア

[1]

[クデ　ソンカラギ　ハングル　スヌン　パメン]
[kɯdɛ son⁷karagi hangɯl ⁷sɯnɯn pamen]
그대　손가락이　한글　쓰는　밤엔
君の　指が　ハングルを　書く　夜は

[ネ　マウム　ハングソギ　チャリッチャリッ]
[nɛ maɯm hangusɔgi ⁷tʃariˡ⁷tʃariˡ]
내　마음　한구석이　짜릿짜릿
ぼくの心の　片隅が　キュン

[カ ナ ダ ラ マ バ サ　ア ジャ チャ カ タ パ ハ]
[ka na da ra ma ba sa　a dʒa tʃʰa kʰa tʰa pʰa ha]
가나다라마바사　아자차카타파하
カ ナ ダ ラ マ バ サ　ア ジャ チャ カ タ パ ハ

[ネ　マウム　トゥドゥんシル　トゥグンドゥグン]
[nɛ maɯm tuduŋʃil tugɯndugɯn]
내　마음　두둥실　두근두근
ぼくの気持ち　ふんわり　ドッキドキ

[アヤ　アヤ　オヨ　オヨ]
[a ja a ja ɔ jɔ ɔ jɔ]
아야　아야　어여　어여
アヤ　アヤ　オヨ　オヨ

[オヨ　ウユ　ウイ]
[o jo u ju ɯ i]
오요　우유　으이
オヨ　ウユ　ウイ

- 손가락 指
- -이 …が
- 쓰는 書く. 쓰다(書く)の連体形
- 밤 夜
- -엔＝-에는 …には
- 내 ぼくの. 私の
- 한구석 片隅
- 쓰면 書けば. 쓰다 書く. -면 …すれば
- 나 ぼく. 私
- -는 …は
- 어느새 いつの間にか
- 나도 몰래 ぼくも知らないうちに. 自分でもわからず

[クデ　ソンカラギ　ハングル　スミョン　ナヌン]
[kɯdɛ son⁷karagi hangɯl ⁷sɯmjɔn nanɯn]
그대　손가락이　한글　쓰면　나는
君の　指が　ハングルを　書けば　ぼくは

[オヌセ　ナド　モルレ　ルルルラルラ]
[ɔnɯsɛ nado mollɛ rulluralla]
어느새　나도　몰래　룰루랄라
いつしか　知らぬ間に　ルンルン

[2]

[クデ　ナワ　ハムケ　ハングル　リんヌン　アチム]
[kɯdɛ nawa ham⁷ke hangɯl iŋnɯn atʃʰim]
그대　나와　함께　한글　읽는　아침
君　ぼくと　共に　ハングル　読む　朝

[ヘッサレ　サんクマミ　サップンサップン]
[hɛ⁷sare saŋkʰum(h)ami sa⁷punsa⁷pun]
햇살의　상큼함이　사뿐사뿐
日の光の　さわやかさが　そっとそっと

[カ ナ ダ ラ マ バ サ　ア ジャ チャ カ タ パ ハ]
[ka na da ra ma ba sa　a dʒa tʃʰa kʰa tʰa pʰa ha]
가나다라마바사　아자차카타파하
カ ナ ダ ラ マ バ サ　ア ジャ チャ カ タ パ ハ

[ネ　マウム　トゥドゥんシル　トゥグンドゥグン]
[nɛ maɯm tuduŋʃil tugɯndugɯn]
내　마음　두둥실　두근두근
ぼくの気持　ほんわか　ドキドキ

[アヤ　アヤ　オヨ　オヨ]
[aja aja ɔjɔ ɔjɔ]
아야　아야　어여　어여
アヤ　アヤ　オヨ　オヨ

[オヨ　ウユ　ウイ]
[ojo uju ɯi]
오요　우유　으이
オヨ　ウユ　ウイ

[スルプム　ハン　バんウリ　ハング　ルムヌン　ハヌル]
[sɯlpʰɯm han baŋuri hangɯ rɯmnɯn hanɯl]
슬픔　한　방울이　한글　읊는　하늘
悲しみの　ひとしずくが　ハングルを詠む　空

[クルミ　セギョ　ジュヌン　サラん　サラん]
[kurɯmi sɛgjɔ dʒunɯn saraŋ saraŋ]
구름이　새겨　주는　사랑　사랑
雲が　刻んでくれる　愛　愛

- -와 …と
- 함께 共に
- 읽는 읽다(読む)の連体形
- 아침 朝
- 햇살 日の光
- -의 …の
- 상큼함 さわやかさ
- 사뿐 そっと
- 슬픔 悲しみ
- 한 ひとつの
- 방울 しずく
- 읊는 읊다(詠む)の連体形
- 구름 雲
- 새겨 刻んで. 辞書形は새기다(刻む. 掘る)
- 주는 주다(くれる)の連体形

♪Swinging 한글♪

チャクサ　チャッコク　チョ　スア
[tʃak⁷sa tʃak⁷kok tʃo sua]
작사　작곡 : 조 수아
作詞　作曲　チョ・スア

[1]

[クデ　ソンカラギ　ハングル　スヌン　パメン]
[kɯdɛ son⁷karagi hangɯl ⁷sɯnɯn pamen]
그대　손가락이　한글　쓰는　밤엔
君の　指が　ハングルを 書く　夜は

[ネ　マウム　ハングソギ　チャリッチャリッ]
[nɛ maɯm hangusɔgi ⁷tʃari⁷tʃari]
내　마음　한구석이　짜릿짜릿
ぼくの 心の　片隅が　キュン

[カ ナ ダ ラ マ バ サ　ア ジャ チャ カ タ パ ハ]
[kana da ra ma ba sa　a dʒa tʃʰa kʰa tʰa pʰa ha]
가나다라마바사　아자차카타파하
カ ナ ダ ラ マ バ サ　ア ジャチャ カ タ パ ハ

[ネ　マウム　トゥドゥんシル　トゥグンドゥグン]
[nɛ maɯm tuduŋʃil tugɯndugɯn]
내　마음　두둥실　두근두근
ぼくの気持ち　ふんわり　ドッキドキ

[ア ヤ　ア ヤ　オ ヨ　オ ヨ]
[a ja a ja ɔ jɔ ɔ jɔ]
아야　아야　어여　어여
アヤ　アヤ　オヨ　オヨ

[オ ヨ　ウ ユ　ウ イ]
[o jo u ju ɯ i]
오요　우유　으이
オヨ　ウユ　ウイ

[クデ　ソンカラギ　ハングル　スミョン　ナヌン]
[kɯdɛ son⁷karagi hangɯl ⁷sɯmjɔn nanɯn]
그대　손가락이　한글　쓰면　나는
君の　指が　ハングルを 書けば　ぼくは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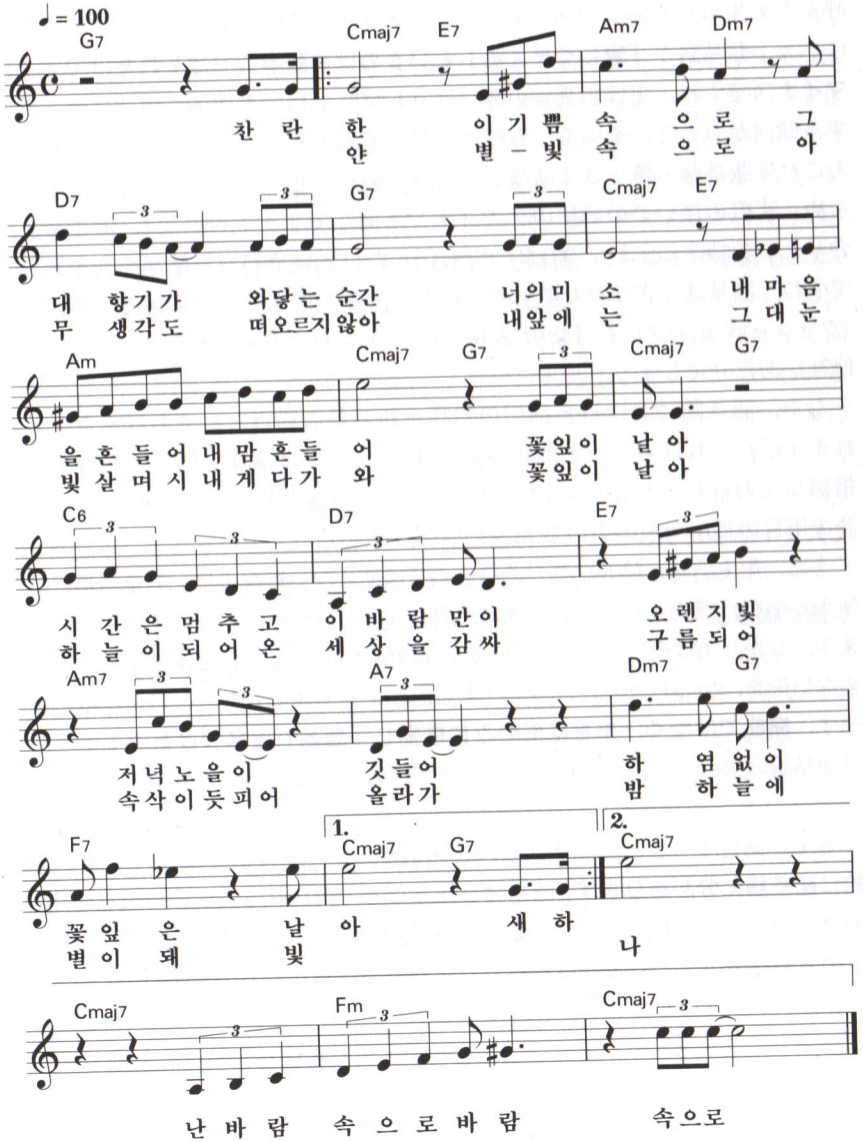
[オヌセ　ナド　モルレ　ルルルラルラ]
[ɔnɯsɛ nado mollɛ rulluralla]
어느새　나도　몰래　룰루랄라
いつしか　知らぬ間に　ルンルン

- 손가락 指
- -이 …が
- 쓰는 書く. 쓰다(書く)の連体形
- 밤 夜
- -엔＝-에는 …には
- 내 ぼくの. 私の
- 한구석 片隅
- 쓰면 書けば. 쓰다 書く. -면 …すれば
- 나 ぼく. 私
- -는 …は
- 어느새 いつの間にか
- 나도 몰래 ぼくも知らないうちに. 自分でもわからず.

「그대, 바람 속에 君, 風の中に」挿入曲

바람 속에 꽃잎은 날아

風の中に花びらは舞い



바람 속에 꽃잎은 날아

チャクサ チョスア キムジナ
작사 : 조수아, 김진아
作詞 チョ・スア, キム・ジナ
チャッコク チョスア
작곡 : 조수아
作詞 チョ・スア

[チャルラナン イ ギップム ソグロ]
찬란한 이 기쁨 속으로
燦爛(さんらん)たるこの歓(よろこ)びの中へ

[クデ ヒャンギガ ワダンヌン スンガン]
그대 향기가 와 닿는 순간
君の香りが触れ来る瞬間

[ノエ ミソ]
너의 미소
君の微笑(ほほえ)み

[ネー マウムル フンドゥロ ネー マム フンドゥロ]
내 마음을 흔들어 내 맘 흔들어
我が心 震わせ震わせ

[コンニピ ナラ]
꽃잎이 날아
花びらが舞い

[シガヌン モムチュゴ イ パラムマニ]
시간은 멈추고 이 바람만이
時間は止まりこの風だけが

[オレンジ ビッ チョニョン ノウリ キットゥロ]
오렌지 빛 저녁 노을이 깃들어
オレンジ色の夕焼けが宿り

[ハヨモプシ コンニプン ナラ]
하염없이 꽃잎은 날아
とめどなく花びら流れ

[セハヤン ピョルビッ ソグロ]
새하얀 별빛 속으로
真っ白な星の光の中へ

[アーム センガクト トオルジ アナ]
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
どんな思いも浮かばず

[ネ アペ ヌン]
내 앞에는
私の前には

[クデ ヌンビッ サルミョシ ネゲ タガワ]
그대 눈빛 살며시 내게 다가와
君の眼の光り そっと近寄って

[コンニピ ナラ]
꽃잎이 날아
花びらが舞い

[ハヌリ トェオ オーン セーサンウル カムサ]
하늘이 되어 온 세상을 감싸
空となってこの世を抱き

[クルムドェオ ソクサギドゥッ ピオ オルラガ]
구름 되어 속삭이듯 피어 올라가
雲となってささやくように咲き立ち

[パマヌレ ピョーリ ドェピンナ]
밤하늘에 별이 돼 빛나
夜空の星となり輝き

[ナン パラム ソグロ]
난 바람 속으로
私は風の中へ

[パラム ソグロ]
바람 속으로
風の中へ

[2]

[クデ　ナワ　ハムケ　ハングル　リんヌン　アチム]
[kɯdɛ　nawa　ham^{ʔ}ke　hangɯl　iŋnɯn　at$ʃ^{h}$im]
그대　나와　함께　한글　읽는　아침
君　ぼくと　共に　ハングル　読む　朝

[ヘッサレ　サんクマミ　サップンサップン]
[hɛ^{ʔ}sare　saŋk^{h}ɯm(h)ami　sa^{ʔ}punsa^{ʔ}pun]
햇살의　상큼함이　사뿐사뿐
日の光の　さわやかさが　そっとそっと

[カ　ナ　ダ　ラ　マ　バ　サ　ア　ジャチャ　カ　タ　パ　ハ]
[kana da ra ma ba sa a dʒa t$ʃ^{h}$a k^{h}a t^{h}a p^{h}a ha]
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
カ　ナ　ダ　ラ　マ　バ　サ　ア　ジャチャ　カ　タ　パ　ハ

[ネ　マウム　トゥドゥんシル　トゥグンドゥグン]
[nɛ　maɯm　tuduŋ$ʃ^{h}$il　tugɯndugɯn]
내　마음　두둥실　두근두근
ぼくの気持ち　ほんわか　ドキドキ

[アヤ　アヤ　オヨ　オヨ]
[aja　aja　ɔjɔ　ɔjɔ]
아야　아야　어여　어여
アヤ　アヤ　オヨ　オヨ

[オヨ　ウユ　ウイ]
[ojo　uju　ɯi]
오요　우유　으이
オヨ　ウユ　ウイ

[スルプム　ハン　バんウリ　ハングㇺ　ルムヌン　ハヌル]
[sɯlp^{h}ɯm han　baŋuri　hangɯ　rɯmnɯn hanɯl]
슬픔　한　방울이　한글　읊는　하늘
悲しみの　ひとしずくが　ハングルを詠む　空

[クルミ　セギョ　ジュヌン　サラん　サラん]
[kurɯmi　sɛgjɔ　dʒunɯn　saraŋ　saraŋ]
구름이　새겨　주는　사랑　사랑
雲が　刻んでくれる　愛　愛

- -와 …と
- 함께 共に.
- 읽는 읽다（読む）の連体形
- 아침 朝
- 햇살 日の光
- -의 …の
- 상큼함 さわやかさ
- 사뿐 そっと
- 슬픔 悲しみ
- 한 ひとつの
- 방울 しずく
- 읊는 읊다（詠む）の連体形
- 구름 雲
- 새겨 刻んで. 辞書形は새기다（刻む. 掘る）
- 주는 주다（くれる）の連体形